

単発音読クリニック 上演7 消費も選択と集中

한국의 소비자들이 영리해지고 있다. 자신만의 분명한 소비 기준을 가지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 소비에는 큰돈이라도 쓰지만 불필요한 소비는 과감하게 털어내는 ‘소비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당국의 대응도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수침체 속에서도 이달 초 서울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형 오페라 공연에는 평범한 20~40 대 회사원들이 1인당 10만원 이상 하는 자리를 가득 메운 데서 이런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